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국인이 지킨 역사
국인이 이끌 나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9, 부산

특허청

www.kipo.go.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 의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과 장 정인식

042-481-5265

사무관 송기중

042-481-3316

열린정부

공공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2019년 11월 27일(수)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의 권리획득을 위한 국제상표출원 전략 한눈에 본다!

- 특허청, WIPO와 공동으로 국제상표출원 컨퍼런스 개최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해외에서 상표권을 쉽고 편리하게 획득하고자 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11월 28일과 29일 양일 간 서울 삼성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는 하나의 출원서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121개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해외상표출원 제도이다. 해외에서 상표권 획득 시,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것보다 마드리드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그 절차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시간·비용도 절약하면서 각국에 흩어져 있는 상표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국가별 마드리드 국제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미국이 8,825건으로 1위, 독일이 7,495건으로 2위, 중국이 6,900건으로 3위인데 반해, 한국은 1,305건으로 세계 14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에서의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제도에 대한 인식제고와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WIPO와 공동으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마드리드 제도의 발전방향’, ‘기업사례를 통한 마드리드 제도의 전략적 활용’ 및 ‘국제상표출원 시 유의사항’ 등을 주제로 강의 및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며, 특히 WIPO 마드리드 심사국장, 중국과 일본의 마드리드 심사관 및 국내기업 농심 등 각국의 상표 전문가들이 주제별 강의를 물론 패널토론자로도 참여함에 따라 컨퍼런스 참가자들에게는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 컨퍼런스는 동시통역을 제공하므로, 국내 개인출원인, 중소·벤처 기업의 상표 및 브랜드 담당자, 변리사 및 특허 법률사무소 직원 등 해외 상표 출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비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금번 컨퍼런스 개최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권 획득과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우리기업들이 마드리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 위주의 중소·중견기업들을 상대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